



'참 순한' 무대...찬란하지 않아서 괜찮아

까마중 작가의 동명 웹툰이 원작
아기자기한 무대의 변신 인상적
반짝반짝 빛나는 대사들 긴 여운

웹툰을 연극으로 만드는 작업은 기존 히트곡들을 깨어 주크박스 뮤지컬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작업이다. "캐릭터, 스토리 다 만들어졌잖아?" 하겠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웹툰은 웹툰이고, 연극은 연극이다. 웹툰에서 먹혔다고 연극에서도 먹힐 것이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오산이다. 그래서 망한 작품 참 많지도 보아 왔다.

연극 '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아'는 까마중 작가가 쓰고 그린 동명의 웹툰이 원작. 대학생 이찬란이 겪은 한 시즌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잔잔한 스토리, 아름다운 그림체, 반짝반짝 빛나는 대사, 엄청난 공감력으로 독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연극 '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아'는 10월 5일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3관에서 처음으로 관객을 만났다. 학교로부터 폐부를 통보 받은 유령 연극부에 (얼떨결에) 합류하게 된 이찬란과 부원들이 마지막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과정이 이 작품의 한 줄 스토리인데, 그 와중에 캐릭터 각각의 사연과 아픔이 치유되어 나간다. 어떻게 보면 다섯 명 모두가 주연인, 그런 작품이다.

무대는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미니멀하다. 정육면체의 큐빅을 잔뜩 쌓아 올려놓은 무대다. 이상자들은 연극부 연습실이 되었다가, 커피숍이 되었다가, 산이 되었다가, 바다가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영상의 스크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이 무척 아름답다.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무대의 미팅함을 영상이 잘 잡아 주었다.

순한 연극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대사들이 참 반짝반짝 빛난다. 그래서 한술 입에 떠 넣으면 처음엔 밍밍한 것 같지만 금방 혀가 적응해 버린다. 대사의 잔



폐부를 통보 받은 대학교 연극부가 마지막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을 그린 연극 '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아'. 주인공 이찬란(맨 앞)과 연극부원들이 MT를 떠나 바닷가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사진제공 | Con.T

잔한 맛이 오래도록 입안에 남는 연극이다. 그러나 이 멋진 대사들을 단순히 팔격하지 마시고, 조금은 길게 머금고 해서 보시길.

출연배우들이 대부분 뮤지컬 배우라는 것도 눈에 띈다. 그래서일까. 극 중 대학교 축제 신에서 연극부원들이 노래를 하는 장면을 삽입했다. 꽤 신나는 '봄밤'이라는 곡인데, 이 작품의 음악감독인 조원영 감독이 작곡한 오리지널이다.

배우들은 웹툰에서 오래 붙여놓은 듯 싱크로율이 높다. 연극부 회장 윤도래 역의 유재윤은 미소가 싱그러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진지함과 코믹을 오가는 모습을 웹툰 그대로 잘 표현했다.

이찬란 역의 박란주는 감정의 전달이 정확해 이 작품이 드러내놓은 (절대 감

취놓지 않는다) 메시지를 충실히 전해 주었다. 이찬란의 어두움, 폐쇄적인 모습을 '자연스러운 애뜻함'으로 그려냈다. 마지막 긴 독백은 이 작품의 짝지만 더없이 길고 절다.

최시운 역의 홍희원은 돋보이는 외모만큼이나 연기가 시원시원하다. 모범생 교회 오빠 이미지지만 어딘지 모를 허당 끼가 큰 웃음을 준다. 요즘 핫한 배우로 급부상 중인 김현진은 막내 권유 역이다. 연기가 싱그러워 보는 이로 하여금 엄마, 이모, 형님 미소를 짓게 만든다. 귀여움을 타고난 배우 같기도.

김혁진(진이라고 불려야 한다) 역의 이설희는 웹툰 속 진과 100% 싱크로율을 보여준다. 웹툰의 한 페이지를 그대로

컬러 복사해 놓은 듯한 외모다. 실제로 이런 김혁진이 캠퍼스를 슬렁슬렁 돌아 다닌다면 사람들의 눈에 '확' 들어올 것이다.

연극 '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아'는 웹툰 독자라면 두 배 세 배 더 재미있게 관극 할 수 있는 작품이다. 그냥 가도 좋겠지만 시간이 된다면 예습 차원에서 웹툰 앞부분만이라도 보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제목 그대로 "당신은 지금 그대로 좋으니 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작품. 조금 바빠 말한다면 이런 것이겠지. 당신은 지금 그대로 찬란해. 그러니까 더 이상 찬란해지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아.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공연

장애청소년 위한 '뽕꼬 아 뽕꼬' 음악회

23일 오후 7시 30분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오경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국립특수교육원, 삼성화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음악회. 2009년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는 장애청소년

의 음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뽕꼬 아 뽕꼬' 캠프를 바탕으로 이들이 세상과 음악교육을 통해 소통하고 예비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10주년 음악회를 위해 2월부터 전국적으로 음악심사를 통해 단원을 선발했으며 세 번의 음악캠프를 진행해 실력을 갈고 닦았다. 이번 음악회의 주제는 '드림(Dream)'이다. 세종솔로이스츠와 비바챔버 앙상블 협연,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과 오케스트라 협연,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이윤희 군과의 피아노 협연이 마련됐다. 지휘자 오경밀이 지휘봉을 잡는다.

메세나협회 '문화예술의 미래' 세미나

29일 오후 2시 | 을지로 페르타워

한국메세나협회(회장 김영호)가 전국 메세나 단체와 함께 '기업 근로환경의 변화와 문화예술의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경영환경의 변화와 여가생활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따른 기업 메세나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양형모 기자

신간

●어찌 상스러운 글을 쓰려 하십니까 (정재홍 저 | 말모이)

훈민정음 창제 이후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초기까지, 200권 이상의 우리 교과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흐름과 핵심을 짚어나간 시간여행 에세이. 477년에 걸친 우리 교과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 각 시대별 한글의 변천과정과 함께 나라가 위태롭던 대한제국 시기, 일제식민지 초기 일제 치하에서 한글을 통해 민족정신을 지켜 나갔던 선조들의 피어린 고투도 만나볼 수 있다. 국내 최초로 복간 작업된 629권의 교과서 영인본들이 이 책의 밑바탕이 되었다. 천자문 광주본, 전술강요 등 그간 들어

본 바 없는 회귀본에 대한 소개도 곁들여 졌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 (다산 정약용 저·오세진 옮김 | 흥익출판사)

흥익신서는 목민심서, 경세유표와 함께 다산 정약용을 말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책이다. 조선의 과학수사 지식을 집대성한 한국 법제사상 최초의 판례 연구서로 정약용의 천재성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이 책



은 흥익신서에 등장하는 36건의 살인사건을 선별하여 흥미진진한 해설과 함께 평역했다. 정조대왕이 직접 심리했던 사건의 구체적인 이야기와 진상을 밝히는 과정, 판결의 법률적 논리에 정약용의 의견이 얹히고설켜 한 권의 역사소설처럼 읽을 수 있다. 양형모 기자



교육·퍼즐

에듀윌

'꿈의 직장 프로젝트' 주 4일 근무제 도입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시행...1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근로시간이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길지만 생산성은 최하위권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러한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는 여러 기업들과 각 부처와 협력하여 범정부적 차원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미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1년 넘게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과 2021년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서도 이 같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근로시간의 변화는 일과 삶의 균형 의미하는 일명 '워라밸'이라는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다. 20~3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각광받으면서 일부 직장인들은 '워라밸'이 구직이나 이직 시에 가장 큰 고려사항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52시간 근무를 넘어 '주 4일 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이 있다. 바로 국가 공인 자격증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종합교육 기업 에듀윌(박명규 대표)이다.

요즘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큰 화두가 된 에듀윌은 6월 직원들의 '꿈의 직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하루 중 가장 나쁜 오후 4시부터 30분간 '집중 휴식시간'을 만들어 모든 에듀윌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에듀윌은 직 일들을 위한 전용 카페와 안마의자 39대를 운영하고 최근에는 국가공인 안마사 4명이 상주하는 '힐링큐브'를 오픈하는 등 직원들 복지에 힘쓰고 있다.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5		4	3			
	4		5	6			8	
7				8				5
3	7		4				9	
	1	8		9			6	
	8		2		7		1	
4			1					7
	5			9	2		3	
		8	4			6		

			7		8		2	
	8			5			3	
3			7		2			8
		5		6			3	
2	6		4		1		5	9
		9		3		6		
5			6		7			2
	2			9			1	
		1	2		7			

■ 스도쿠정답

2	1	9	8	9	4	8	7	6
4	8	2	6	7	9	5	1	3
7	5	7	9	8	1	2	5	4
1	4	1	7	2	3	8	6	9
8	9	2	6	7	8	7	1	4
8	6	8	1	4	7	4	2	5
2	4	2	4	3	6	9	7	1
6	9	1	8	5	3	6	9	2
6	9	1	8	5	3	6	9	2
3	4	7	2	5	2	1	6	9
9	1	5	4	6	3	8	7	2
2	2	4	6	9	8	5	3	1
4	2	4	5	6	8	9	7	1
6	9	1	8	5	3	6	9	2
4	2	4	5	6	8	9	7	1
7	1	3	7	2	4	1	2	8
8	6	1	2	4	7	7	5	3
4	8	4	9	5	1	2	8	6
6	2	3	8	1	7	9	6	4